

# 현대 한국 미디어의 식민지, 전쟁 경험 형상화와 그 영향 - 영화, 드라마를 중심으로

이기훈 (연세대)

이 연구는 해방 이후 2000년대까지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가 어떻게 식민지와 전쟁 경험을 형상화하고, 그것이 대중의 역사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45년 해방이후부터 1950년대, 1960~70년대, 1980~90년대, 2000년대 이후로 시기를 나눈다. 주목할 것은 어떤 소재를 통해 과거에 접근하는지, 또 동일한 소재에 어떻게 다르게 접근하는지, 그 역사적 변화를 통해 매체를 지배하는 역사인식과 그 영향을 추적한다. 우선 강력한 민족주의가 식민지 역사의 재현을 지배했다. 당연히 항일운동, 독립운동을 다룬 영화와 드라마들이 주류를 이루지만, 그 속에서도 중대한 변화들이 나타난다. 대표적인 것이 ‘유관순’을 다룬 영화들이다. 1948년, 1959년, 1966년, 2019년까지 다섯 차례 영화될 때마다 민족운동의 상징이라는 성격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여성주체성, 남성의 역할, 지배자로서 제국의 표상은 모두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순연한 민족주의적 이미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각 시대의 국가 이데올로기, 자본주의적 시장논리가 겹쳐지면서 또 다른 식민지상들을 창출했다. 1960~70년대의 ‘만주 웨스턴’이 대표적이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형상화, ‘모던 경성’ 이미지의 등장과 변화 등도 검토해야할 소재다. 한국전쟁의 경우, 국가는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미지를 창출해냈다. 전쟁 직후인 1950년대부터 검열과 탄압은 혹독했고, <오발탄>처럼 전쟁의 경험을 우회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었다. 변화는 1980년대 이후 민주화운동의 활성화 속에서 반공영화, 전쟁영화가 ‘분단영화’로 전환하면서 이루어졌다. 많은 영화와 드라마들이 전쟁을 객관화하려거나 엄숙주의로부터 벗어나 전쟁을 다시 형상화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여전히 ‘국사’의 힘은 여전히 과거의 형상화를 제약하고 있으니, 새로운 이야기를 함께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 ■ 이기훈 (李 基勳 / LEE, Kihoon)

1991년 서울대 국사학과 졸업, 1993년 서울대 국사학과 석사, 2005년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 목포대학교 사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 계간 <<역사비평>> 편집주간, 역사문제연구소 부소장. 전공분야는 근대사회사 및 문화사.

대표저작: <언니의 곡절 - 한국 근대 가족과 여자 어린이 노동>, <<역사비평>> 141, 2022. <<무한경쟁의 수레바퀴: 1960-1970년대 학교와 학생>>서해문집, 2018. <<청년아 청년아 우리 청년아 : 근대 청년을 호명하다>>, 청년사, 2014.